

## “이 시대에 왜 여전히 회화인가?” MZ세대 작가들이 대답하다

June 19, 2025 | 성수영 기자

[Click to read the full article](#)

한국경제

2025년 06월 19일 A28면

## “이 시대에 왜 여전히 회화인가?” MZ세대 작가들이 대답하다

### 전시 리뷰 넥스트 페인팅

지금 이 시대에 그림을 그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눈앞의 장면을 기록하려면 사진을 찍으면 된다. 마음속 영감을 자유롭게 보여주고 싶다면 영상으로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에도 회화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애정을 받으며 살아 있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젊은 작가 그룹전 ‘넥스트 페인팅: 애즈 위 아’는 그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다.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작가 여섯 명이 각자의 답을 전시장에 내놨다.

김세은은 도시 공간을 거대한 캔버스에 옮기는 추상화가다. 고등어(본명 김다정)의 작품에서는 잔혹동화를 연상시키는, 부드럽고 친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화풍이 두드러진다. 이 은새의 도발적인 색감과 조형의 작품도 눈길을 잡아끈다.

유신애는 대형 캔버스에 풀어낸 극도로 사실주의적 표현, 기독교 미술의 삼면화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인상적이다. 일상을 서정적으로 포착한 전병구와 주변 삶을 스냅사진처럼 옮기는 정이지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명화와 비슷한 안정적 구도와 서정성이 있다.



전병구 '무제'.

국제갤러리 제공

소격동 국제갤러리 한옥에서 열리고 있는 ‘아득한 오늘’도 매력적인 전시다. 현대미술가이자 영화감독, 전시 기획자 등으로 활동하는 박찬경 작가가 기획했다. 한옥 공간에 맞춰 전통과 현대미술을 조화시킨 작품들이 등장한다. 2023년 리움미술관 개인전을 연 64세 화가 김범부터 30~40대 작가인 임영주·조현택·최수련·최윤 등이 참여했다.

두 기획전은 국제갤러리가 앞으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젊은 작가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두 전시 모두 7월 20일까지. 성수영 기자